

No. 2013-36

일 본 경 제 동 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9. 02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성장단계로 본 일본기업의 현위치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위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주 전반에는 미국의 시리아 개입예상에 따른 엔 매입수요 증가로 강세, 후반에는 시리아 정세에 대한 경계완화로 약세
- 장기금리 : 연금기금의 대량 국채매입 예상으로 하락세(국채가격 상승)

구 분	8.26(월)	8.27(화)	8.28(수)	8.29(목)	8.30(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8.70	98.15	97.14	97.85	98.33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31.90	1,131.16	1,149.18	1,143.47	1,129.19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636.28	13,542.37	13,338.46	13,459.71	13,388.86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65	0.740	0.715	0.710	0.72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7월 실업율은 3.8%로 개선, 특히 여성 실업율이 3.3%로 15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
- 2013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월비 0.1%로 물가상승기조 진입과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 조짐을 시사
- 2013년 7월 수출은 전월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1조엔대로 확대

* 對한국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흑자는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3.8			2.6(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對한국 투자	(40)	7.7			9.1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2(0.0)	▲0.3	0.1	0.3	0.3	0.2	0.0	0.1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
엔화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Mega FTA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포괄적 대응 : 통상전략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연구소, 8월27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pdp/13p016.pdf>

② 주간경제이슈 : 성장단계로 본 일본기업의 현황

□ 평균적인 성장단계는 안정성장기

- 닛케이신문사가 기업의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일본기업들의 성장단계를 조사
 - 기업수익이 최고 수준이던 2007년 이전 5년간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를 시산
 - 수익이 높을수록 성장단계가 전기에 있다고 보고, 순서적으로 이륙기, 성장기, 안정성장기, 성숙기로 분류한 다음, 2007년 시점의 평균기업을 안정성장초기로 가정하여 이후 5년간 변화의 정도를 비교
- 2013년 일본의 상장기업 평균은 안정성장기의 중간정도이며, 전체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남아있기는 하나, 비교가능 한 2,418개 기업 중 657개 기업이 수익을 개선시키는데 성공

□ 소비·인터넷 관련 기업, 이륙기·성장기 단계에 위치

- 이륙기에 있는 기업은 스마트폰용 게임 '퍼즐&드래곤스'의 대히트로 수익이 급성장한 강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의사용 사이트 회원을 늘리고 있는 엠스리, 일본오라클 등 인터넷 관련기업들이 많음
 - 인터넷 관련 외에도, 소매업 관련 분야에서 일본과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퍼스트리테일링을 필두로 채산성이 높은 PB(자주기획)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는 로손 등이 이륙기에서 약진하고 있음
 - 고성장과 높은 이익률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실적의 기복이 크고 불안정성도 내포
- 성장기에 위치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1/6정도로, 15기 연속 최고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니트리홀딩스와 아시아 사업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유니참 등 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이 단계에 있음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순풍을 맞고 있는 대형 통신업체 3개사 모두 성장기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애플의 아이폰 판매로 먼저 출발하여 스프린트넥스텔을 매수한 소프트뱅크가 여타 2개사보다도 앞서고 있음
 - 유니참과 소프트뱅크는 소비·인터넷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성장기 기업으로서 높은 매출액증가율, 높은 이익률, 높은 자산효율 등 재무지표 면에서 3박자를 갖추고 수익을 높이고 있음
 - 이들 성장기단계에 있는 기업은 일본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줄 수 있는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아시아시장에서 성장기회를 찾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

□ 안정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의 기업들

- 안정성장기에는 코마츠와 히타치제작소,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을 대표하는 핵

심기업들이 많음

- 막강한 경쟁력으로 일본의 GDP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임
- 한편, 보다 후기 단계에 진입한 성숙기 기업들도 있음
 - 일본유센(日本郵船)과 파나소닉 등은 시황 악화나 신흥국 리스크와 같은 경쟁 조건의 변화에 고전하면서 수익이 저하
 - 성숙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전략 여하에 따라 다시 수익을 높일 수 있음

□ 전기·전자분야는 폭넓게 분포

- 기업수가 많은 전기업종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여러 성장단계에 분포
 - 무라타제작소, 키엔스 등 전자부품업체들이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약진
 - 제품구성이나 시장점유율, 구조개혁의 진전도 등에 따라 수익 격차가 발생
- 주목을 끄는 것은 성숙도가 높은 업종에서도 성장기 기업이 있다는 점임
 - 미국과 중국에서 농기구 판매를 늘리고 있는 쿠보타, M&A를 발판으로 성장해 온 일본전산 등이 독자적인 성공패턴

□ 재 약진하는 기업들

- 기업들은 급성장기에서 안정, 정체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구조조정과 독자적인 사업추진 등을 통해 성장단계에서 재 약진이 가능하고, 성숙기에 이른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보다도 수익을 높이는 사례도 많음
- 성장단계로 U턴하는 이른바 재 약진 기업들로서 2가지 유형이 있음
 - 엔고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 중에서도 안정성장기 단계로 U턴하는 기업들임
 - 미쓰비시자동차는 일본 국내에서 경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데다, 채산성 없는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생산철수 효과 등으로 성숙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
 - 항공엔진 분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IHI를 비롯,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후지중공업도 안정성장기에서 성장기로 재약진
 -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사업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수익을 높이고 있음
 - 산리오의 캐릭터상품 판매에서 라이선스 사업으로 전환, 오리엔탈랜드도 리피터 수요를 발판으로 각각 안정성장기에서 성장기로 되돌아가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산성 회복을 우선시

- 일본기업들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수비형 경영으로 채산성 회복을 우선시했으나,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된 단기 유동성자금을 성장투자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

③ 경제정책동향

□ 정상 외교를 통한 중동진출 지원

- 아베 총리는 중동 3개국 방문, 8월 28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카타르 경제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일본기업의 기술력을 홍보
 - 일본과 카타르 양국은 일본의 의료기술 제공, 투자협정교섭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
 - 카타르는 일본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
 - *일본은 원유수입량의 약 10%, 액화천연가스의 20%를 카타르에 의존
 - 아베 총리의 중동 3개국 방문에는 약 50개 기업 및 대학 등이 수행했는데, 이중 일본정부가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료산업 관련기업이 20%를 차지
 -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의료, 인프라 정비 등으로 저변을 넓혀 국민 공동 대응
- 성장전략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목표를 2020년까지 현재의 3배인 30조 엔으로 설정하였는데, 아베총리는 일본기업의 수주확보를 위해 정상외교를 강화
 - 중동 국가들이 정상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아베총리의 방문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업계의 평가
- 아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동의 발전을 위해 일본이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인프라,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민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
 -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유대를 강화하면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
- 플랜트 건설과 내구소비재 분야는 한국과 중국기업이 선전하고 있고, 의료분야는 미국과 독일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국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보도

□ 일본정부, TPP 교섭에서 자유화율을 90%로 높일 방침

- 일본정부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TPP교섭에서, 전체 품목중 일정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율인 자유화율을 90%로 높일 방침임
 - 당초 각국에 70~80%대의 자유화율을 제시했으나 싱가포르 등 100%에 가까운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섭국가도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일본이 체결한 FTA의 자유화율은 84%~88%이었으나, 앞으로 90%의 자유화율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농업단체 등 개별 업계단체와 물밑 접촉을 계획
- TPP교섭의 자유화율은 98% 전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
 - 교섭국들이 자유화율을 더 높이라는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정부의 어려운 판단이 예상

4 일본기업동향

□ 일본 반도체기업의 구조변화와 한일간 경쟁

- 일본 반도체기업의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사설에서 평가
 - 도시바와 소니가 대형투자에 나서면서 사업확장에 적극적인 한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와 후지츠는 사업을 축소
- 이들 각사의 부침을 결정짓는 최대 요인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에 통용되는 강한 제품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 2002년 D램 분야에서 철수한 도시바는 경영자원을 스마트폰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 분야에 집중
 - 개발·생산기능을 오키아이치(四日市)공장(미에현 소재)에 통합하여 삼성과 거의 대등한 체제를 구축하고 총 4,000억 엔을 투자
 - 반도체의 미세화기술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8월부터 3차원구조의 메모리 생산을 개시한데 이어, 도시바도 2013년도 말에 샘플을 출하, 2015년도에 양산을 목표
 - 삼성이 기억소자를 24단으로 쌓아올리고 있는데, 도시바는 조금 더 쌓아 비용을 절감할 방침
 - 3차원 제품은 칩 면적당 기억용량을 높이는 한편, 생산효율 향상이 과제인데, 삼성이 양산면에서는 먼저 시작했으나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지는 불투명
 - 2012년 NAND형 메모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7%, 도시바가 31%
- 전자의 눈이라 불리는 화상센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제 1위인 소니도 도시바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게임기용 반도체사업에서 철수하고 원래 강점이 있는 화상분야에 특화
- 반대로 NEC와 히타치제작소의 반도체사업을 통합하여 탄생한 르네사스는 고수익 상품개발에 실패
 - 쓰루오카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설비의 노후화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폐쇄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임
 - 르네사스는 게임과 통신 등 특정 소수의 일본 국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거래처의 경영부진이 르네사스의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
 - 이는 내적인 체질에서 탈피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업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시사

5 한국관련위치

□ 일본 세가사미, 한일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 세가사미홀딩스가 8월 30일 한국정부 및 한국미디어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설립
 - 출자금은 210억 원으로 약 20%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세가사미측이 부담하고, 한일 양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시아 및 세계 무대에서 통용되는 애니메이션을 육성할 계획
- 설립될 「CL애니드림투자조합」은 한일 기업에 의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용 펀드로서, 참가기업들이 기획하는 애니메이션 외에도 한일 기업들이 제작하는 작품에도 출자하며 7년간 10~15개 작품을 목표
- 펀드에는 한국정부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가 120억 원을 출자하고 세가사미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여하는 자회사 톰즈엔터테인먼트에 출자하는 한편, 한국 관련 기업 4개사가 나머지 50억 원을 부담
 - 세가사미는 펀드가 출자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관련 상품을 그룹 내에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미니스톱, 한국 내 점포수를 일본수준으로 늘릴 계획

- 일본계 편의점인 미니스톱이 2015년까지 한국의 점포수를 현재 2,200개에서 2,500개로 늘릴 계획
- 한국의 미니스톱은 해외사업에서 중심에 위치
 - 그러나 규모면에서 미니스톱은 한국 내 8,000개 체인점 중 선두주자인 패밀리마트 등 여타 일본계 대형체인점이나 한국계 체인에 비해 열세
 -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니스톱의 해외점포수는 2012년에 일본을 상회하였으나, 2013년 7월말 시점에서 한국은 1,900개 점포로 해외점포의 80%가 집중
 - 한국의 약 24,000개 편의점 중 미니스톱은 4번째로 많으나, 점포당 일일 평균 판매액은 2012년에 140만원(약 124,000엔)으로 상위
 - 2012년도에는 수익이 2%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한국은 9% 증가하여 점포망이

확대된 이유

- 2013년 이후에는 매장이 협소하고 채산성이 없는 점포를 폐쇄하고 대형 신규 점을 매년 200~300개씩 입점
 - 신규점포에는 10석 정도의 시식코너를 설치하고 취급품목수도 2,000~2,200개로 40% 늘려 일본의 표준점포(약 3,000개)에 근접시키는 등, 한국에서도 젊은 층을 겨냥한 1인용 식사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문제는 없는가?

- 닷케이는 8월 28일자 칼럼 기사 「大機小機」에서 한국의 외환준비고가 7월말 현재 약 3,300억 달러로, IMF가 단기대외채무와 대내투자잔고에 기초하여 정한 기준치의 130%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
 - 이 수준은 최근 미국의 금융완화 출구전략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인도의 180%, 인도네시아의 165%보다도 낮음
- 한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외환준비고는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외화유출에 대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
- 만일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한국이 기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융통 가능액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
 - 이와 관련하여, 본심을 털어놓고 실정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따름이라고 닷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